

태권도 품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본 무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근표* (경희대학교, 강사)

요 약

본 논문은 태권도 품새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다. 품새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품새의 본질론에 대한 연구이기도 한데, 이 개념이 정립되어야 품새의 수련이나 구성, 사상 등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라데나 아이키도 등의 형(型)에 대한 입장과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품새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품새는 태권도 기법이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움직임'을 모은 것으로서 집적된 형식적인 틀로서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는 (1) 수련자, (2) 동작의 형식, (3) 가상의 상대라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품새의 정형성의 논리적 근원은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예의 기법이라는 행위의 형식성이고, 그 물리적 원인은 인간 행위의 한계성이다. 이런 점은 품새와 겨루기를 모두 중요시하는 태권도 철학의 독특한 입장으로서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주제어: 품새, 품새의 개념, 태권도 품새

I. 서론

태권도의 전체 체계에서 품새는 일견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외 타무술의 경우도 동양 무술의 수련 방법의 중심에는 품새가 있다. 일례로 1992년에 개최된 태권도한마당 대회 개최목적은 호신술, 격파 등을 포함해서 품새를 경연종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적 한국체육문화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이었다(대한태권도협회, 1992). 이렇게 품새는 무예 수련의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학술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논의되지 못한 듯 하다. 이에 따라 소외되어 가는 태권도 품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임신자, 곽정현, 2009). 이런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 품새와 관련된 태권도인들의 많은 수련과 노력들이 상당 부분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반성 및 회의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일례로 류병관은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품새가 경기 태권도의 경기 상황과 선수들 자신에게서 논할 필요도 없고 수련할 필요도 없는 보조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라고 말하고 있다(류병관, 1996).

그러므로 태권도 품새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태권도 연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적지 않지만 태권도 품새에 대한 기존의 많은 논의는 태권도 교본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는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즉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기존의 태권도 교본에서 품새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대부분 주어진 품새들의 동작에 대한 설명뿐이었다. 특히 품새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권도 품새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들을 조사하고 일본 무술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태권도 품새의 본질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태권도 품새의 경기화와 도장 수련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개발 등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태권도 품새의 본질에 대한 본 연구는 철학적 접근법으로 이루어졌다. 품새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곧 품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품새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자료를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 태권도 품새에 대한 논문들과 저서들을 검토하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자료들을 골고루 수집하여 포함시켰다. 하지만 품새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간추려내고 조사하였다. 특히 품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제목의 자료에서 품새에 대한 논의들을 다수 발견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또한 태권도 품새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타 무술에서의 유사 개념과 대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가라데와 아이키도와 같은 일본 무술에서의 품새인 형(型)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의미있는 수준의 심층적인 자료들을 비교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주요자료로 분석하였다. 조사된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유사한 논리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그 개념의 함축을 분석하여 추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때 단순히 문헌자료의 내용만을 비교분석하지 않고 실제로 태권도인들이 행동하고 수련하는 현실을 참고하여 품새의 본질에 대한 추론을 하였다.

문헌 자료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권도 품새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분야에서 발전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합리적 사고를 위해 사고의 요소와 기준들을 정리하고 이 틀 속에서 사고의 문제점

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Paul & Elder, 2001). 품세의 본질에 대한 자료 분석에서는 사고의 요소로서 개념(concept)과 함축(implication), 전제(assumption) 그리고 추론(inference)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런 요소들이 명확성(Clarity)과 유관성(Relevance), 논리성(logicalness)의 기준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품세의 개념을 무술 전체와 동일시하는 경우에는 그 개념의 의미가 너무 확장되어 명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품세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품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개념들과의 관계를 가정한다면 유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개념이 확립되면 거기에 포함된 전제(assumption)를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전제 분석을 통해서 품세에 대해서 당연시 하는 우리의 관념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따짐으로써 품세 개념의 학술적 측면들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품세의 본질론에 대한 선행 연구

1. 품세 본질론의 논리적 위치

태권도 품세에 대한 논의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막연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준수(2005)는 “품세의 하나하나에는 태극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 각 품세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되새기며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품세를 통하여 심신 수양과 공방의 원리를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태권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품세 속의 형이상학과 더불어서 품세 수련의 목적이 섞여 있다. 즉 태극의 원리는 품세의 형이상학이고 품세 수련을 통해 “올바른 태권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품세 수련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태극의 원리와 올바른 태권도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념 간의 유관성(Relevance)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태권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라테의 형에 대한 논의도 포괄적이면서도 막연하다. 사카가미 타카히로는 “형이란 옛날부터 명인, 달인이라고 불렸던 ‘무사’가 실전

또는 스스로의 수련에 의해 터득한 성과를 기억해두기 위한 방편에서 합리적으로 순서를 세운 것이다. … 형에서 시작하여 형으로 나아가고 형으로 끝난다. 공수도는 또 ‘군자의 무술’이라고도 하여 가장 예절을 존중한다.”(坂上降祥, 2002)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형(품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양자의 유관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품새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좀더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태권도 품새에 대한 주제들이 분류된 연구가 있었다. 양진방과 노윤기(2004)는 태권도 품새의 연구목적으로 다음의 주제들을 제시한다.

- (1) 품새 수련의 가치관에 따른 기술적 의의와 정신적 의의는 어떠한가?
- (2) 품새 수련관의 인식에 따른 현대주의와 전통주의 관점은 어떠한가?
- (3) 품새에 관한 철학사상을 통한 전통적 이론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은 어떠한가?
- (4) 품새 수련의 철학과 동작 구성 원리의 사상은 어떠한가?

하지만 이런 연구 주제 구분은 특정한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며 혹은 특정한 관념적 전제 위에서 확정된 물음들이다. 따라서 그 관점이나 관념적 전제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 ‘정확히 그’ 물음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해 보겠다.

먼저 (1)의 주제는 품새 수련에서의 기술적 의의와 정신적 의의는 태권도 자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품새 수련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먼저 물을 필요가 있다. 만약 (2)가 그런 주제라면 (1)과 (2)는 주제의 순서가 바뀐 셈이다.

한편 (2)의 주제는 품새 수련관의 인식에 따른 현대주의와 전통주의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전제 위에서 주어진다. 그런데 그러한가? 사실상 오늘날 태권도계 내에서는 품새에 대한 전통주의적 입장조차도 그렇게 학술적으로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현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전무한 편인 것 같다. 따라서 동일한 전제 위에서 논의하는 (3)의 물음 역시 잘못된 관념적 전제에 의존하는 물음이라 할 수 있겠다.

(4)의 물음 역시 우리의 태권도 수련이나 기법이라는 현실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고 논리적으로 개인적인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즉 품새 수련의 철학과 동작 구성 원리에는

어떤 사상이 있어야만 (4)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사상이 없이 실질적인 원칙들만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실질적인 원칙들을 모두 하나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상'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오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발전된 품새 주제 구분은 태권도학의 체계 연구(이창후 등, 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태권도 품새론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태권도 품새의 본질은 무엇인가?
- (2) 태권도 품새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 (3) 태권도 품새는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
- (4) 태권도 원리 및 철학과 품새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이창후, 2007)

이 각각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학문적 노력, 즉 각 물음을 주제로 하는 학적 탐구와 논의의 내용을 '품새 본질론', '품새 구성론', '품새 수련론', 그리고 '품새 사상론'이라고 부르자.

여기에서 먼저 "태권도 품새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태권도 품새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관념적 전제 없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본질론의 주제는 비록 형이상학적이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다른 모든 품새론의 세부 주제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한편 "태권도 품새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구성론의 주제는 어떤 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역시 태권도의 현실에서 직접 생겨나는 주제이며 특별한 관념적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양진방과 노윤기의 주제 (4)와 비교해 볼 때 그러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진방과 노윤기의 주제 (4)는 동작 구성 원리의 사상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이 주제들은 동작 구성 원리에 대해서 묻는다. 동작 구성 원리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그 다음에 그 원리의 사상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 그런데 태권도의 현실에서 태권도 품새의 동작 구성 원리가 자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원리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구성론에서의 주제는 태권도 품새 구성 원리에 대한 물음을 촉발하는 구체적인 주제이다. "기존의 품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가능성도 논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바로 구성론의 문제가 제기된다. 수련론에 대한 주제 역시 우리의 태권도 현실에서는 직접적이다. 왜냐하면 당장 품새를 수련해

야 하며 그것을 수련한다면 보다 나은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상론에 대한 주제는 품새나 태권도의 개념 자체에서 필연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태권도를 발전시켜 온 한국과 세계의 태권도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반드시 제기될 수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품새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품새에 대한 기본 핵심 내용은, 위에서 제기된 주제들을 본질론, 구성론, 수련론, 사상론의 순서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2. 선행 연구 및 타 무도의 논의 고찰

품새론의 본질론의 주제는 태권도 품새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태권도 및 타 무술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태권도와 유사한 가라데의 경우를 보면 나카야마 마사토시(中山正敏, 1995)에서 “형은 공수도의 입구이자 수련의 도표이고 완성의 비결이 되고, 형에서 시작하여 형으로 나아가고 형으로 끝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유사하게 『공수도 백과』의 사카가미 타카히로는 “형이란 옛날부터 명인, 달인이라고 불렸던 ‘무사’가 실전 또는 스스로의 수련에 의해 터득한 성과를 기억해두기 위한 방편에서 합리적으로 순서를 세운 것이다. 그 형 속에 포함되는 수많은 기술이 비전이었다. 그런 만큼 형은 공수도의 입구이자 수련의 도표이고 완성의 비결이 된다. 형에서 시작하여 형으로 나아가고 형으로 끝난다.”고 말했다(坂上降祥, 2002). 이에 따르면 가라데의 품새인 형(型)은 (1) 실전 혹은 수련으로 터득한 성과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며, 동시에 (2) 수련의 도표이고 완성의 비결이다. 이런 내용들은 태권도인들에게도 친숙한 설명이지만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논리적인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품새 혹은 형이 수련 성과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면 이것은 수련을 완성한 고수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초급자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특히 수련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태권도와 가라데에서는 품새가 초급자들에게도 중요한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품새는 ‘성과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성과를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수련의 도표이고 완성의 비결’이라는 (2)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그런데 사카가미 타카히로의 주장에서 가라데 수련은 “형에서 시작하여 형으로 나아가고 형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라데 수련에서 형(품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겨루기나 격파와 같은 다른 수련이 없더라도 형(품새)의 수련으로

대부분이 터득될 수 있으며, 거꾸로 말해서 형(품새)이 없으면 가라데의 핵심은 결코 습득될 수 없는 셈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태권도에서 이해하는 품새와는 의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태권도에서는 기본 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의 5가지를 중요시하며, 이에 따라서 품새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품새 수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실제 태권도 수련자들은 품새를 수련하기는 하지만 겨루기를 더 중요하게 수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에서는 품새의 개념이 가라데의 형의 개념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이키도의 관점에서 형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발경의 과학』에서 요시마루 케이세쓰는 형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주변에 많은 형이 있는 것에는 놀란다. 꽃꽂이의 형만 해도 구체적으로는 각 유파에 따라 다른 모양이지만 「천지인」이라든지 「진(眞) 행(行) 초(草)」라고 하는 기본형을 생각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도에서도 「예법의 형」이라든지 「마시는 법의 형」이라는 것이 있어 그 당사자들에 의해 ‘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범이 되고 있다. 이 규범이라는 것도 역시 일종의 형인 것이다. 또 고전 춤도 형이다.”라고 했다(요시마루 케이세쓰, 1994).

그런데 이런 요시마루 케이세쓰의 논의는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인 것을 모두 묶어서 ‘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서 실질적인 핵심이 모호하여 명확성(Clarity)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규범이라는 것도 역시 일종의 형’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논의한다면 겨루기에도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으며 기본 동작에도 모두 형식이 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품새의 개념은 기본 동작과 겨루기 등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형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요시마루 케이세쓰는 형의 수련을 통해서 어떤 동작을 정확히 되풀이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① 형은 ‘어떤 인식’에 입각한 육체적인 형 또는 동작이다. ② 형을 정확하고 또한 대량으로 되풀이함으로써 그에 포함되는 ‘어떤 인식’을 재창조할 수 있고 또한 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생각의 결론이다(요시마루 케이세쓰, 1994). 그런데 필자가 생각건대 그 형의 개념이 태권도의 품새에도 적절히 적용되려면 품새의 수련에서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인식’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인식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에 따라서 태권도 품새의 개념에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인식’이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라면

용어라 혼란스러운 것이고 동시에 의미라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태권도에서 품새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초기 태권도 서적인 화수도교본(황기, 1949)과 당수도교본(황기, 1958)에서는 “사도(斯道)의 수련상의 모체(母體)는 형(型)이니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는 곧 품새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았음을 의미한다. 태권도 심사에서는 품새가 중요하지만 태권도 경기에서는 겨루기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에 따라서 태권도에서 품새는 경기 태권도의 경기상황과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련할 필요도 없는 보조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류병관, 1996; 권오륜, 2007).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권도에서는 겨루기 역시 품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태권도 교본(최홍희, 1959)에는 “사도의 삼대요소는 첫째 형(型), 둘째 대련(對鍊), 셋째 격파(擊破)이다. 이 세 가지 기술이 구비되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옛사람들이 후학(後學)을 위하여 혼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였으니 이것이 곧 품새이다.”라고 하였다(이창후, 2000). 이런 입장에서 최홍희는 품새의 본질을 ‘각종의 공방(攻防) 및 격파(擊破)의 모기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연속된 동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최홍희, 1959)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태권도는 상대와 더불어 있는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는 항상 상대와 더불어 수련을 함이 올바르다 할 것이나 항상 그럴 수 있는 바는 아니다. 또한 때로는 혼자서의 수련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살상력이 지극히 큰 태권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따라 품새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입장이다(이창후, 2000).

이러한 태권도의 품새 본질론의 특징은 제일 먼저 ‘상대와 더불어 태권도가 출발한다’는 생각에 있다. 즉 최홍희가 대련도 꼭 필요함을 강조한 데에서 보듯이 태권도 수련에는 상대가 항상 필요하지만 ‘항상 그럴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품새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준수 역시 “품새는 상대방을 가상해 놓고 공격과 방어기술을 수련자 스스로 연마할 수 있도록 일정한 틀로 짜여진 기술체계이다.”(정준수, 2005)라고 강조했다. 이 점은 공수도의 형의 개념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리하여 태권도의 품새는 ‘옛사람들이 후학(後學)을 위하여 혼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방편’이다. 이런 방편은 때때로 혼자서 수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태권도 품새의 의미는 아이키도처럼 ‘인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수련하는 것에 일단 집중한다.

또한 태권도 품새 개념은 근본적으로 혼자보다는 상대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겨루기나 격파와 함께 존재하는 수련과정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카가미 타카히로나 요시마루 케이세쓰의 논의에서 일본 무도가들이 형(품새)를 그 자체로서 완전한 수련의 방법이자 무도의 집결체로 보고 있지만 최홍희는 품새와 겨루기, 격파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창후 역시 품새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점에서 최홍희와 이창후의 품새론이 태권도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황기의 입장이나 일본 무술의 입장과는 다른 태권도의 입장에서 품새를 논의하는 것이 태권도의 본질에는 더 적합할 것이다.

IV. 품새의 본질 개념 탐구

1. 품새란 무엇인가

이제 품새 본질론의 주제로 돌아와 보자. 품새란 무엇인가? 가라테나 아이키도의 입장과 다른 태권도 품새론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움직임’, 혹은 ‘정형화된 움직임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기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연속된 동작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최홍희의 품새 개념은 이와 비슷하다. 조성훈도 이런 입장에 따르고 있다(조성훈, 2013).

품새는 태권도나 다른 무예체계에서 ‘품새’, ‘형’, ‘투로’, ‘본’, ‘틀’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본개념은 유사하거나 같다(양진방, 노윤기, 2004). 그 핵심 의미는 “품새란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따라야만 하는 마땅한 움직임을, 기법을 중심으로 정형화한 것이다.”(이창후, 2000)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움직임’, 즉 ‘어떤 동작의 형식’이 태권도 품새인 것이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새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각종 상징적 의미나 연무선, 혹은 여타의 부수적인 요소들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품새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의미를 정의한 것, 즉 ‘최소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품새의 최소 정의에 포함된 함축들을 분석하면 우리는 품새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1) 수련자, 2) 동작의

형식, 3) 가상의 상대(혹은 적)의 세 요소들이다.

수련자는 곧 태권도인이고 품새를 연무하는 주체이다. 아무도 수련하지 않는 태권도 품새란 무의미하므로 수련자는 품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제 수련자가 있어서 품새를 한다고 한다면 그는 품새가 의미하는 정해진 형식의 동작들을 한다. 그런데 그러한 형식의 동작들은 곧 공방의 기법들이어야 한다. 태권도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공방을 위해서 존재하고 따라서 품새 역시 그렇게 상대를 제압하고 나를 보호하는 공방 속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방이란 상대와의 상호작용이므로, 태권도 품새의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품새가 아닌 것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곧 가상의 상대이다. 그러므로 “품새 안에는 항상 적으로서의 상대가 가정되어 있다.”(이창후, 2000) 이것은 개념적으로도 그러하고 경험적으로도 그러하다. 즉 태권도 품새를 수련하는 경험 속에서 모든 태권도 인들은 바로 가상의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도록 지시받는다.

수련자, 동작의 형식, 가상의 상대라는 품새의 논리적 구성요소는 품새 구성의 고려 요소이며, 동시에 품새 이해의 요소이다. 즉 품새 구성의 요소와 품새 이해의 요소는 동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품새 구성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품새를 이해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결국 두 경우 모두 품새에서 제시되는 움직임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품새의 논리적 구성요소는 품새 구성과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이렇게 품새의 논리적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 품새는 최초로 출발점이었던 최소 개념인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움직임’에서 확장된 정의이다. 이때 최소 정의는 기법으로서의 품새를 지시하고, 확장된 정의는 연무된 결과로서의 품새를 지시한다. 기법으로서의 품새는 형식으로서, 그리하여 추상적 존재자로서 존재하고 연무된 결과로서의 품새는 구체적인 수련자에 의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서, 그리하여 구체적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품새 개념에 따르면 태권도의 기존 품새들뿐만이 아니라 겨루기 연습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연속 발차기 수련과 약속 겨루기 수련도 품새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측면에서 현재의 태권도 상황에서 진정한 품새는 바로 선수들이 상대 없이 수련하는 스텝과 연속 발차기 기법 수련이 실질적인 품새에 해당한다. 그것은 품새가 단순히 공격과 방어인 체 하는 동작들의 연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태권도의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우리가 품새의 구성 요소 중 ‘가상의 상대’를 어느 정도 ‘실제 상대’로 대체한다면

약속 겨루기도 품새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런 개념의 확장은 우리가 태권도 안에서 관례화된 용어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가 아닌 다른 무예체계에서는 다른 수련자와 동작을 맞추어서 수련하는 품새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품새 개념의 외연의 가장자리에 어떤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도 항상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2. 품새의 정형성의 개념적 토대

품새의 최소 개념이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움직임’이므로 품새의 개념에서 그 동작들의 정형성은 필연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태권도인들이 어떤 동일한 품새를 수련한다면 그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 동일한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동일한 품새를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의 동일한 측면은 모두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즉 품새에 주먹지르기나 발차기가 있다면 모두가 주먹지르기와 발차기를 해야 하고, 이때의 주먹지르기와 발차기는 동작의 모양이고 형식이다. 즉 “품새는 일정한 길을 따라 동작을 연무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누구나 그렇게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이창후, 2000) 이것이 품새의 정형성의 의미이다.

품새의 정형성의 논리적 근원은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예의 기법이라는 행위의 형식성이고, 그 물리적 원인은 인간 행위의 한계성이다.

먼저 모든 무예 기법이라는 행위의 형식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형식성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무예의 기법이 인간의 행위로 구현되지만 정확히 기법이 가리키는 것은 그 행위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돌려차기라는 기법이 있다면 철수와 영수가 모두 돌려차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철수의 행위와 영수의 행위는 ‘돌려차기’라는 점에서 동일한데, 이 동일성은 두 사람의 행위의 동일성이다. 즉 철수의 차기의 높이나, 혹은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혹은 신을 신은 채로 발차기를 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은 돌려차기라는 기법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형식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철수와 영수, 혹은 그 어느 누구라도, 돌려차기가 제시하는 형식적인 움직임을 구현한다면 그것이 곧 ‘돌려차기’가 된다. 즉 태권도의 어떤 ‘기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공방의 효용성이 있는 정형화된 움직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위에서 언급한 품새 구성의 세 요소에서 ‘상대’와 같은 요소가 없더라도 돌려

차기의 동작 형식이 만족되면 그것은 ‘돌려차기’, 혹은 ‘돌려차기다운 것’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 그런 까닭에 춤과 같은 것에서 태권도의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즉 춤 속에서는 개념적인 수준에서라도 제압해야 할 상대가 없고, 그리하여 태권도의 동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공방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법이 아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권도의 움직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동작의 형식은 어떤 한 측면에서 태권도 기법이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개념이다.

한편 품새의 정형성의 물리적 원인은 인간 행위의 한계성이다. 인간 행위의 한계성을 언급하는 논리적 이유는, 우리가 공격과 방어라는 인간의 행위 안에서 ‘임의성’을 먼저 발견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적인 공방의 움직임은 임의적이다. 달리 말하면,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공격이나 방어를 상대가 시도할지 알 수 없다. 어느 순간에 정확히 어떤 지점을 가격할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임의성은 동시에 어떤 한계 안에서의 임의성이다. 결국에는 상대가 손이나 발, 혹은 자신의 여타 신체를 활용하여 공격할 것이고, 무기를 들었다면 그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형화된 형식을 가진 태권도의 기법이란 그 동작의 형식으로 상대의 공격에 있는 임의성을 최대한 포괄하는 나의 방어의 움직임이고, 동시에 상대의 방어에 있는 정형성을 넘어서는 나의 공격의 임의성을 구현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일단 발차기를 했을 때 그 발차기가 어떤 발차기일지라도(임의성) 한 발짝 물러나는 형식적인 동작으로(정형성) 다 방어할 수 있다. 동시에 상대의 방어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받아차기를 한다. 이것은 내 발차기 시간의 임의성을 조절하여 공격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형화된 움직임은 무예의 기법으로서의 효용성을 가지기 어려울 듯이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태권도의 어떤 ‘기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공방의 효용성이 있는 정형화된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품새는 이것이 확장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3. 기법의 집적으로서의 품새와 그 함의

정형화된 움직임을 모은 것이라는 품새의 본질은 “옛사람들이 후학(後學)을 위하여 혼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였으니 이것이 곧 품새이다.”(이창후, 2000)라는 주장과도 통하며, ‘형이란 옛날부터 명인, 달인이라고 불렸던 무사가 실전 또는 스스로의 수련에

의해 터득한 성과를 기억해두기 위한 방편에서 합리적으로 순서를 세운 것'이라는 사카가미 타카히로의 가라테 형에 대한 정의와도 일맥상통한다(송형석, 2005). 정리하자면 기법의 집적으로서의 품새가 의미하는 바는, 품새란 '기법들을 완전히 터득한 무예인이 그 기법을 수련시키고 전승시키고자 수련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창후, 2003)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품새가 정형화된 움직임인 기법들의 조합이라는 개념, 즉 복합 기법으로서의 품새의 개념에서 도출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고찰했듯이 기법들이 조합되기 위한 여러 원칙들을 올바르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념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며 격투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법의 집적으로서의 품새가 갖는 의미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기본 기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여타의 다른 움직임들과 그 움직임의 형식 자체에서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개념은 품새의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 즉 태권도의 품새가 단지 무술적인 살상의 기법을 익히는 방편으로서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출발점은 그러하지만 그 속에서 더 근원적인 본질을 발견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응용을 변형시켜서 살상기법의 수련이 아닌, 다양한 유희이나 건강 체조, 혹은 기타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를 제압하고 나를 보호하는 태권도 본연의 본질을 일순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형은 사회적으로 많이 요청되는데 그것은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서 태권도의 수련방식 역시 다양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대와의 공방이라는 진지한 개념에 너무 매몰되어 있을 때 집중된 수련이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그런 수련은 양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품새의 본질적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수련자의 요소를 고려하자면, 수련자가 어린 아이나 노인, 혹은 여성들도 될 수 있다. 이런 수련자들의 관심과 특성을 반영하여 태권도 수련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그들이 원하는 비본질적 요소들(즉 음악이나 놀이, 즐거움 등)이 결합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입에 쓴 약을 먹이기 위해 몸에 해롭지 않은 사탕을 그 속에 섞는 것과 같다.

하지만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태권도인들, 사범들은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즉 태권도 품새가 태권도 품새이게끔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잠시 보류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거나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태권도 본래의 중요한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태권도 품새의 핵심 요소들은 암암리에라도 추구되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사탕을 섞더라도 그것은 결국 약일 수 있도록 사탕을 섞어야 하며 약효를 해치

는 사탕을 섞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춤이나 에어로빅, 체조 등에 붙어 있는 태권도일지라도 궁극적인 의미에서 ‘태권도’일 수 있다.

V. 결론과 제언

이상에서 태권도 품새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연구법을 차용하여 품새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한 후 품새의 본질에 대한 태권도의 입장과 일본 무도의 입장을 비교해 보았다. 이에서 일본 무도는 품새(型)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 태권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겨루기 및 호신술 등의 여러 수련 과정의 하나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대비를 분명하자면 일본 무도에서 품새(型)는 수련의 ‘전체’에 가깝다면 태권도의 품새는 ‘부분’임이 명확하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태권도 품새는 ‘기법으로서 정형화된 움직임’을 모은 것으로서 집적된 형식적인 틀로서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는 (1) 수련자, (2) 동작의 형식, (3) 가상의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작의 형식’이 의미하는 품새의 정형성의 논리적 근원은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무예의 기법이라는 행위의 형식성이고, 그 물리적 원인은 인간 행위의 한계성임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다양한 격투기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태권도를 포함한 전통적인 무술들의 효용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태권도 분야에서는 품새가 중요한 경기 종목으로 떠오르는 상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에서 모두 태권도 품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될 수 있다. 품새 경기에서는 품새의 본질이 경기 규칙의 변화 및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격투기 종목에서는 그런 품새의 본질이 격투능력의 발전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도전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품새의 본질에 대한 더욱 폭넓은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태권도인들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륜(2007). 태권도 품세의 내재적 가치. *한국체육철학회지*, 15(4), 171-187.
- 대한태권도협회(1992). **제1회 태권도한마당자료**.
- 류병관(1996). 태권도 수련가치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 연구지*, 7(1).
- 사카가미 타카히로(坂上降祥)(2002). **공수도 백과**. 강태정 옮김, 서울: 서림문화사.
- 송형석(2005). **태권도란 무엇인가: 태권도의 철학적 탐구**. 이문출판사.
- 양진방, 노윤기(2004). 태권도 품세 수련의 전통적 이론 분석.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15(1), 279-307.
- 요시마루 케이세쓰(1994). **발경의 과학**. 강태정 옮김, 서울: 서림문화사.
- 이창후(2000). **태권도의 철학적 원리**. 서울: 지성사.
- 이창후(2007). 태권도학의 체계에 대한 연구, **태권도학 연구 I**.
- 이창후 외 8인(2015). **태권도학의 체계 연구**. 서울: 국기원 연구소.
- 임신자, 광정현(2009). 태권도 품세의 정체성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17(1), 145-166.
- 정준수(2005). **태권도 정신 및 경기기술**. 서울: 보성출판사.
- 조성훈(2013). **태권도철학원리 집요**. 서울: 애니빅.
- 최홍희(1959). **태권도 교본**. 서울: 성화문화사.
- 황기(1949). **화수도교본**. 조선문화교육출판사.
- 황기(1958). **당수도 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 中山正敏(1995). **공수도전서**. 강태정 옮김. 서울: 서림문화사.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Taekwondo Poomsae: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Japanese Martial Arts

Jung, Geun-Pyo (Kyung Hee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Taekwondo Poomsae was studied critically. A study of the concept of Poomsae is also that of the essence of Poomsae, and this i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of effective next study about the training of Poomsae or its construction, or its ideology. In this paper, the opinion of Kata of Karate and Aikido of Japan was compared, and several conceptions were summarized in this paper. In the conclusion, Poomsae is a 'collection of formal actions' which are the Taekwondo technique, and the accumulated collection is composed of three: (1) trainee, (2) form of action, (3) imaginary opponent. In addition, the logical resource of the formality of Poomsae is formed that are included in every kind of martial arts, and its physical cause is limits of human activity. In this perspective, the Taekwondo philosophy is different from that of Japanese martial arts.

Keywords: Poomsae, concept of Poomsae, Taekwondo Poomsae